

‘두 번의 악몽’ 반복되지 않기를...시민 연대로 화답



김태규 기자

‘위기에도 기죽지 않는 K-민주주의 탄생’

김진아 진아월드 대표

“광장은 달라졌고, 손에 쥔 도구도 바뀌었지만, 그날의 외침은 시대를 넘어, 세대를 넘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진아 진아월드 대표는 “K-팝 아이돌 응원봉은 새로운 방식의 유풀한 저항이었고, 자유와 정의를 향한 의지를 밝혔던 1980년 5월 도청 민주광장의 햇불과 같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위험적인 12·3 비상계엄 이후 열린 급남로 광장 집회에 참석, 집회 현장에서는 2030 젊은 세대, 여성을 중심으로 K-팝 아이돌 응원봉과 재치있는 문구가 새겨진 깃발이 눈길을 끌었다”며 “현장은 연발 가요대축제 같았다. 과거처럼 절기를 보여줘야 하는 무거운 느낌의 투쟁적 집회가 아니라, 민주주의 위기 앞에서 기죽지 않는 아름답고 즐거운 K-민주주의 탄생을 보였다”고 당시 상황을 언급했다.



김 대표는 마지막으로 “5·18 민주화운동은 과거의 유산이 아니다. 계속 살아 숨쉬며, 시대의 언어와 문화로 끊임없이 다시 태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식은 달랐지만 본질은 같았다. 헌법 정신을 지키고, 시민이 부여해준 권력을 감시하며, 다시는 국가 폭력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연대였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민주주의 새로운 불빛...새 역사 이어가길’

김현주 광주인성고 교사

김현주 광주인성고등학교 교사는 “탄핵 광장에서 MZ세대들이 든 ‘응원봉’은 민주주의의 새로운 불빛이었다”고 강조했다.

김 교사는 “‘응원봉 연대’라는 깃발을 처음 본 날은 지난해 겨울 국회 앞이었다”며 “모양도

빛도 다른 응원봉을 들고 모인 그들도 민주주의를 간절히 바라는 시민이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응원봉이 아이돌 응원에 그치지 않고 시대와 나라의 미래를 응원했다는 것은 개별화된 사회에서 공동선을 추구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준 사례였다”며 “세대 공감, 세대 통합의 시간과 광장을 응원봉 세대와 함께 열었다는



상화한 공간이자, 민주시민교육의 배움을 삶으로 경험하는 장소였다”고 덧붙였다.

것은 무너진 사회를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의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노래패의 공연과 형형색색의 응원봉이 호흡을 맞추는 광장은 우리가 함께 지켜낸 공동체와 민주주의를 형성하는 장소였다”고 덧붙였다.

최환준 기자

“탄핵 광장 주역에 20·30대 여성 있었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탄핵 정국 당시 20·30대 중심의 젊은 여성들이 집회의 주역이었다고 강조했다.

기 사무처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 20·30대 여성들은 자신들의 의제로 지속적으로 정치화되고 연대해왔다”며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들의 투쟁 과정을 주목하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혁명 투쟁의 주역으로 서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정부 들어 여성가족부 폐지, 사회적 차별 등으로 생존과 삶이 위협받았고, 12·3비상계엄으로 인해 작은



또한 “2030 여성들이 보여준 약자 연대와 실천이 새로운 운동의 핵심 가치이자, 탄핵 정국은 2030대에 여성을 중심으로 한 청년 세대가 주역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생존의 토대마저 완전히 뒤흔들었다”며 “그들의 삶이 위협받는 결정적인 순간에 스스로 무장하고 단결해 광장에 나섰고, 이제 새로운 운동의 주역의 등장을 기뻐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환준 기자

“5·18 저항정신 현대적 재해석 이어져야”

김나운 광주시의원

“5·18민주화운동이 국가 폭력에 맞선 저항의 상징이라면, 응원봉 시위는 민주주의를 일상적이고 포용적인 문화로 확장시켰습니다.”

김나운 광주시의원은 “응원봉 시위는 5·18의 저항 정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사례다. 지난 겨울 젊은이들은 각자의 목소리를 표현하는 다양한 응원봉과 깃발, 선결제 등으로 연대를 보였다. 시대가 변해도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의 참여와 창의성은 변함없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45주년을 맞는 5·18민주화운동은 국가 폭력 진상규명, 세대 간 기억 단절, 지역



을 넘어서는 전국적·세계적 자산화 등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며 “5·18은 과거의 사건이 아닌 현재의 과제이며, 민주주의는 계속 써줘야 지킬 수 있는 살아있는 가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응원봉 시위는 단순한 ‘불빛 막대기’가 아닌 5월 정신을 계승하며 민주주의를 새롭게 쓰는 청년의 방식이자 무기다”며 “진화하는 5월 정신이 앞으로의 5·18과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더 밝고 단단하게 만들 것이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세대간 민주주의 감수성 교차되는 전환점”

김영삼 광주전남DJ재단 사무처장

“5·18은 이제 단지 과거를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세대 간 민주주의 감수성이 교차하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어 합니다.”

김영삼 광주전남DJ재단 사무처장은 “과거의 시위는 전경의 방패와 곤봉, 최루탄과 화염병, 페퍼포그가 뒤엉킨 긴박한 현장이었다”며 “하지만 지난해 12월 서울과 광주의 거리에서 펼쳐진 장면은 전혀 달랐다”고 회상했다.

김 사무처장은 “형형색색의 빛을 발하는 응원봉은 MZ세대가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정치적인 사를 표현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저항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새로운 매개체였다”며 “이 지점에서 기성세대는 생경함을 넘어 새로운 전환점으로 중요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화 이후에 태어나 자유와 권리를 당연하게 여기는 세대에겐 응원봉은 단지 놀이의 도구가 아니라 민주적 상상력의 상징이자 새로운 실천의 도구”라며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기억의 보존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기억의 재구성”이라고 강조했다.

최환준 기자

다시 만난 오월 다시 만든 세상

2025

광주인권상 시상식

Gwangju Prize for Human Rights Awards Ceremony 2025

2025. 5. 18. (일) 19:00 5·18민주광장 특설무대

1부 | 광주인권상 시상식

- 본상 : 아시아 정의와 권리 (비영리 인권 단체, 인도네시아)
- 특별상 : DKK 문화동맹 (문화예술 연합체, 필리핀)

2부 | 축하공연

이한철 밴드 / 팍페라 라루체 /
미스몰리 / 일어서라! 합창단

5·18기념재단

The May 18 Foundation